

세계가 '여성대통령' 주목하는 지금 한국 국가브랜드 높일 절호의 기회

'세계적 브랜드 대가' 마틴 롤 단독인터뷰 ▶3면

“한국은 브랜드 ‘원석’이다.”
세계적 브랜드전략 전문가 마틴 롤 마틴롤컴퍼니 CEO(45·사진)의 말이다. 대한민국 브랜드는 섬세하게 다듬으면 무한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나라’ ‘떠오르는 나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나라’로 인식돼 있지만 한국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나라며 브랜드로 치면 아직 브랜딩 과정에 있다고 했다.

일례로 삼성·현대·LG 등 전세계에 이름을 널리 알린 한국의 대기업들이 효율·혁신·디자인 면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상징적인 글로벌 브랜드는 없다는 게 롤의 평가다.

그는 한국기업들이 기대치를 높여야 한다며, 우리 기업들이 힘써온 세계화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문차 방한한 롤은 28일 머니투데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브랜드 대가’답게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술술 풀어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기업들의 진정한 ‘세계화’가 이제 막 시작

국제사회 차에 호기심 우호적 분위기 활용을

됐다면 ‘박근혜 정부’ 출범을 계기로 기업들의 세계화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롤은 “박 대통령은 여성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세계인의 관심을 받을 것”이라며 “결국 박 대통령은 한국을 가장 잘 대표하는 얼굴로 한국은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국제사회의 우호적 분위기



이어 “한국은 이제 효율·혁신·디자인을 넘어 가치·개성을 추구하는 감성적 측면을 파고들어 다이아몬드 원석을 다듬을 때”라고 강조했다.

롤은 그러나 너무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다고 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시장에서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만 애플이 상징하는 ‘반항적’이며 ‘쿨’(cool)한 느낌

한국은 ‘브랜드 원석’ 이제 섬세히 다듬을때

를 최대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를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앞에 두고 있다”며 “새로운 여성 대통령 탄생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지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의 ‘라이프스타일’은 아직까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브랜드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애플이 브랜드계에서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자리잡기까지 35년이 걸린 만큼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하세린 국제경제부 인턴기자